

宗旨와 宗統繼承

- 교운 2장을 중심으로 -

高南植*

目次

I. 緒言	IV. 宗旨 制定과 宗統
II. 布教 50年工夫와 宗統繼承	V. 宗旨 內容과 宗統
III. 新元의 時運과 宗旨	VI. 結語

I. 緒言

九天上帝의 降世와 天地公事는 天地成功의 時運속에서 이루어졌다.

그리고 九天上帝의 後天仙境 建設은 천지공사를 마치고 化天과 함께 未來의 어느 시점에서의 出世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天地公事의 過程과 化天 그리고 出世사이에는 九天上帝로부터 天賦的인 宗統을 傳受받은 宗統繼承者에 의해 天地公事의 특정 부분이 度數에 따라 진행되어진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宗統繼承者는 宗教 創始者의 神格位를 밝히고 信仰의 對象으로의 奉安 및 敎理의 要諦등을 體系化시키기도 하는데 이러한 맥락에서 信仰의 對象, 信條, 目的등과 함께 宗旨도 道主 趙鼎山에 의해 선포된 것이다.

道主는 九天上帝의 布教 50年工夫終畢의 公事に 의거 먼저 新元에 따라 傳敎를 통해 선천 종교사의 내용을 정리했다. 나아가 시운의 흐름이라는 순환적 우주관속에서 도주는 宗旨를 선포하고 九天上帝의 宗統繼承者로서의

* 대전대 대순종학과 교수

度數에 따르는工夫를 순차적으로 진행하였다.

本考는 敎運史에서 宗旨의 位相과 內容을 九天上帝의 天地公事와 道主의 宗統繼承을 중심으로 考察하는데 목적을 두었음을 미리 밝혀 둔다.

II. 布敎 50年工夫와 宗統繼承

구천상제는 강세하여 천지공사를 역사하며 구천상제의 德을 펴는 수행을 종도들에게 설법하였다.

상제께서 어느날 柳贊明과 金自賢 두 종도를 앞세우고 각각 십만인에게 포덕하라고 말씀하시니 찬명은 곧 응낙하였으나 자현은 대답하지 않고 있다가 상제의 재촉을 받고 비로소 응낙하느니라. 이때 상제께서 “내가 평천하 할 터이니 너희는 치천하 하라. 치천하는 오십년 공부이니라. 매인이 여섯명씩 포덕하라”고 이르시고 또 “내가 太乙呪와 靈長呪를 벌써 시험해 보았으니 김 병욱의 액을 태을주로 풀고 장 효순의 난을 운장주로 풀었느니라”고 말씀하셨도다.(행록 3장 31절)

평천하와 치천하로 대별되는 포덕에서 平天下는 구천상제의 천지공사이고 치천하는 향후의 구천상제의 덕을 펴는 50년공부를 근간으로 하는 수행이다.

治天下도 구천상제의 공사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종통의 전수를 통해 종통계승자가 구천상제의 평천하 천지공사를 이어 치천하하는 공부와 광범위하게는 그에 따르는 신앙인들의 수행이다.

그러면 치천하에 입각해 구천상제의 공사를 이루는 布敎 공부의 면을 보기로 한다.

구천상제는 出世를 예언하고 종도들의 믿음을 강조하며 화천하였다.

金光贊이 어느날 개벽 공사가 속히 결정되지 않으므로 모든 일에 불평을 털어놓고 “나는 자살하겠노라”고 말하여 좌석을 흐리게 하니라. 상제께서 좌중을 보시고 “모든 일에 때가 있나니 마음을 돌려 어리석음을 벗으라. 너희는 죽는 일을 장차 나에게서 보리라”고 이르셨도다.(행록 4장 55절)

위에서 나타나듯 구천상제는 종도들의 불평과 싸움을 타이르며 종도들에게 여러차례 化天을 암시하였다.

이와함께 구천상제는 화천후 종도들의 믿음을 특히 강조하고 열석자의 몸으로 다시 출세할 것임을 예시하였다.

김자현은 六月 어느날 상제께서 “네가 나를 믿느냐”고 다짐하시기에 “지성으로 믿사오며 고부화약 때에도 상제를 따랐나이다”고 믿음을 표명하였도다. 그리고 상제께서 그에게 가라사대 “장차 어디로 가리니 내가 없다고 핑계하여 잘 믿지 않는 자는 내가 다 잊으리라.” 이 말씀을 듣고 자현은 “제가 모시고 따라가겠나이다”고 여쭙니 상제께서 다시 “어느 누구도 능히 따르지 못할지니라. 내가 가서 일을 행하고 돌아오리니 그 때까지 믿고 기다리라. 만일 나의 그늘을 떠나면 죽을지니라”고 이르셨도다.(행록 5장 19절)

水雲가사에 “발동말고 수도하소. 때 있으면 다시 오리라.” 하였으니 잘 알아 두라 하셨도다.(행록 5장 17절)

“나의 얼굴을 똑바로 보아두라. 후일 내가 출세할때에 눈이 부서 바라보기 어려우리라. 예로부터 신선을 말로만 전하고 본 사람이 없느니라. 오직 너희들은 신선을 보리라. 내가 장차 열석자의 몸으로 오리라”(행록 5장 25절)

구천상제는 이와같은 계속적인 암시속에서 1909년 6월 24일(음) 화천하였다

상제께서 수박에 소주를 넣어서 우물에 담구었다가 가져오게 하셨도다. 그 수박을 앞에 놓고 가라사대, “내가 이 수박을 먹으면 곧 죽으리라. 죽은 후에는 묵지도 말고 널속에 그대로 넣어두는 것이 옳으니라”하셨도다. 상제께서 약방 대청에 앉아 형렬에게 꿀물 한 그릇을 청하여 마시고 형렬에게 기대어 가는 소리로 태을주를 읽고 누우시니라. 이날 몹시 무더워 형렬과 종도들이 모두 뒤 대밭가에 나가 있었도다. 응종이 상제께서 계신 방이 너무 조용하기에 이상한 마음이 들어 방안에 대어보니 이미 싸늘히 化天하신지라. 응종이 놀라서 급히 화천하심을 소리치니 나갔던 종도들이 황급히 달려와서 상제의 돌아가심이 어찌 이렇게 허무하리오 하며 탄식하니라. 갑자기 문계 구름이 사방을 덮더니 뇌성벽력이 일고 비가 쏟아지는 가운데 화천하신 지붕으로부터 서기가 九天에 통하는도다. 때는 단기 사천 二백 四십 二년 이조 순종 융희 三년 기유 六月 二十四일 신축 사시이고 서기로는 一천 九백 九년 八月 九일이었다.(행록 5장 35절)

그리고 구천상제의 화천은 앞에서 보았듯이 化天후에도 치천하를 하는 종통계승자에 의해 구천상제의 가르침을 펴는 포교의 면이 예시된 것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化天속에서 구천상제는 『나의 일이 장차 楚將蜂起와 같이 각색이 혼란스럽게 일어나되 다시 眞法이 나오게 되리라』(교운 1장 42절)고 하여 향후 眞法이 출현됨을 보였으며 敎運에 있어

상제께서 동쪽에 머물고 계실 때 교운을 펴시니라. 종도 아홉 사람을 불러 앉히고 갑철에게 푸른 竹나무를 마음대로 잘라 오게 명하셨도다. 갑철이 자라 온 대가 모두 열 마디인지라. 그중 한 마디를 끊고 가라사대 “이 한 마디는 두목이니 두목은 마음 먹은 대로왕래하고 유력할 것이며 남은 아홉 마디는 수교자의 수이니라.” 그리고 상제께서 종도들에게 “하늘에 별이 몇이나 나타났는가” 보라 하셨도다. 갑철이 바깥에 나갔다 들어오더니 “하늘에 구름이 가득하나 복판이 열려서 그 사이에 별 아홉이 반짝입니다”고 아뢰니라. 상제께서 “그것은 수교자의 수에 응한 것이니라”고 밀씀하셨도다.(교운 1장38절)

라고 하여 구천상제의 덕을 펴는 일이 두목을 통해 이루어짐을 예시하였다.

이처럼 구천상제의 대두목 공사는 화천후의 미래적 시운을 암시한 것으로 종통 계승자에 대한 공사이고 나아가 道通과 관계된다.

구천상제는 도통을 원하는 한 종도에게 도통이 천상공정에 참여하고 있는 선령신과 연관됨을 말하고 九天上帝의 私情에 의해 道通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밝혔다.

공우가 어느날 상제를 찾아 뵈옵고 도통을 베풀어 주시기를 청하니라. 상제께서 이 청을 꾸짖고 가라사대 “각 姓의 선령신이 한 명씩 천상공정에 참여하여 기다리고 있는 중이니 이제 만일 한 사람에게 도통을 베풀면 모든 선령신들이 모여 편벽됨을 힐난하리라. 그러므로 나는 사정을 볼 수 없도다. 도통은 이후 가기 닭은 바에 따라 열리리라” 하셨도다. (교운 1장 33절)

이와함께 구천상제는 대두목 공사를 처결하고 홀로 도통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대두목에게 도통줄이 전해져 도통이 이루어지고 또한 유불선의 도통신이 심신으로 각기 닭은 바에 따라 도통을 열어줌을 언급했다.

“내가 도통줄을 대두목에게 보내리라. 도통하는 방법만 알려주면 되려니와 도통 될 때에는 유 불 선의 도통신들이 모두 모여 각자가 심신으로

닭은 바에 따라 도에 통하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어찌 내가 홀로 도통을 말아 행하리오"라고 상제께서 말씀하셨도다.(교운 1장 41절)

이렇게 『치천하는 너희들이 하라 치천하는 50년공부이니라』는 말과 화천의 암시와 화천 그리고 대두목 공사등을 본 것은 향후 구천상제의 천지공사를 뒤이어 구천상제의 사상을 체계화시켜 포교할 인물이 종통계승자로서 있을 것이라는 의미이다. 또 이것은 종통계승자에 의해 일련의 敎理의 기틀이 짜여져 선포될 것임을 암시한 것이고 그것은 결국 천부적으로 구천상제의 종통을 계승한 인물에 의해 이루어질 것이 분명하다.

그런데 우리는 교리의 선포나 종통계승자에 대한 해답을 布敎라는 용어속에서 찾을 수 있다. 더 나아가 종통계승자에 관한 부분은 구천상제가 천지공사를 마치고 화천하며 포교가 50년 동안의 공부로서 있을 것임을 선언한 내용에서 실마리를 풀어 나갈 수 있다.

상제께서 六月 어느날 천지공사를 마치신 후 “布敎五十年工夫終畢”이라 쓰신 종이를 불사르시고 종도들에게 가라사대 “伊尹이 五十而知四十九年之非를 깨닫고 成湯을 도와 대업을 이루었나니 이제 그 도수를 써서 물샷틈 없이 굳게 짜놓았으니 제 도수에 돌아닿는 대로 새 기틀이 열리리라” 하셨도다.(공사 3장 37절)

위 내용은 천지공사는 모두 마쳐졌고 구천상제의 가르침을 펴는 일이 향후 50년동안의 공부로서 있게 되며 그 과정에서 물샷틈없는 도수에 따라 포교의 기틀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그리고 구천상제의 포교 50년공부 度數를 맞춰 趙鼎山 道主(1895~1958)는 화천하던 1958년 다음과 같이 포교 50년공부를 하였음을 밝혔다.

도주께서 정유년 十一月 二十一日 자시부터 무술년 三月 三일까지 도장에서 불면 불휴하고 백일도수를 마치시니라. 五일에 심히 괴로와 하시므로 한의사와 양의사를 불러왔으되 “때가 늦었도다”고 이르시니라. 도주께서 이튿날 미시에 간부 전원을 문 밖에 시립케 한후 도전 박한경을 가까이 하고 도전의 머리에 손을 얹고 도의 운영 전반을 말도록 분부를 내리고 “五十年 工夫 終畢이며 至氣 今至 四月來가 금년이다. 나는 간다. 내가 없다고 조금도 낙심하지 말고 행하여 오던 대로 잘 행해 나가라”고 말씀하시고 다시 문밖을 향하여 “도적놈”을 세번 부르시더니 화천하시니라. 무술년 三月 六일 미시요. 양력으로 一九五八年 四月 二十

四일이요. 수는 六十四세로다.(교운 2장 66절)

1958년으로부터 50년을 거슬러 올라가면 그해는 1909년 도주가 만주 봉천으로 가던 해이고 이해부터 50년공부가 시작된 것임을 알 수 있다.이것은 구천상제의 종통이 도주에게 계승됐음을 보여주는 사실이다.

다음으로 도주에게로 종통이 계승된 내용은 구천상제의 공사와 도주의 공부에서 찾을 수 있다. 먼저 마하사에서 도주가 도수를 마치고 발표한 글은 아래와 같다.

『도주께서 마하사에서 도수를 마치고 도장에 돌아오시니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느니라. 도주께서 그 자리에서 「小年才氣拔天摩 手把龍泉幾歲磨 世界有而此山出 紀運金天藏物華 應須祖宗太昊伏 道人何事多佛歌」의 상제의 글귀를 외우시고 「상제께서 짜놓으신 도수를 내가 풀어나가노라.」고 말씀하셨도다.』(교운 2장 48절)

도주가 『상제께서 짜놓으신 도수를 내가 풀어 나가노라.』고 한 의미는 다음과 같이 구천상제의 공사와 연관된다.

윗 글은 원래 구천상제가 김송환에게 외워준 詩인 『小年才氣拔天摩 手把龍泉幾歲磨 石上梧桐知發響 音中律呂有餘和 口傳三代詩書教 文起春秋道德波 皮幣已成賢士價 賈生何事怨長沙』(행록 4장 5절) 중의 두 구절 『小年才氣拔天摩 手把龍泉幾歲磨』와 내장산에서 밝힌 『世界有而此山出 紀運金天藏物華 應須祖宗太昊伏 道人何事多佛歌』(행록 2장 5절)의 내용이 합쳐진 것이다.

내용적으로 볼 때, 구천상제는 내장산에 가서 도인들이 불가를 많이 부르는 현실을 안타까워 하였다. 그리고 도주는 마하사 도수를 마치고 구천상제가 내장산에서 밝힌 글귀를 다시 공부속에서 보였다.

그런데 마하사에서 도주가 행한 공부는 다음과 같다.

『도주께서 기축년 겨울에 동래 마하사의 방 한간에서 정화수 스물네 그릇을 받들고 사십 구일을 한 도수로 정하시고 공부를 하셨도다. 이광석이 대응전에서 도주를 위해 발원 염불을 올리니라. 사십 구일이 거의 될 무렵에 도주께서 승녀와 시종자에게 「법당의 불상을 자세히 보았느냐」고 물으시므로 그들이 달려가 보니 불상이 머리를 숙이고 있는도다. 도주께서 사십 구일을 다 채우신 새벽에 공부실 위에 학이 울며 날아가고 시종자에게 그 동안 모아놓은 글씨 종이를 태우고 그 재를 시

넷물에 띄우라고 이르시므로 시종자가 그대로 하니 시넷물에 무지개가 서는도다』(교운 2장 47절)

도주의 마하사에서서의 도수공부는 법당의 불상이 고개를 숙인 내용을 담고 있다.

도주가 마하사에서 49일을 한 도수로 공부를 하고 구천상제가 내장산에서 언급한 『도인들이 불가를 많이 해 안타깝다.』는 내용을 다시 외운 것은 도주의 공부로서 내장산에서 구천상제가 보았던 공사가 풀어져 나간 것이다. 구천상제의 「포교 50년 공부종필」공사에 따른 과정으로 道主의 도수공부속에서 布敎의 기틀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일례이다.(高南植.1996:423~426)

이외 도주의 도수에 의한 공부는 백일 도수, 복현무 도수, 둔 도수, 단 도수, 폐백 도수, 해원 공부, 담뱃대 도수, 황극신 도수 등으로 나타난다.

한편 구천상제의 공사에 따른 도수 공부외에 종통과 관련 도주는 구천상제의 신격위를 이미 봉안하고(교운 2장 32절) 그후 뇌성보화천존상제의 뜻을 다음과 같이 언급했는데 이것은 도주가 구천상제의 신격위를 세부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50년 공부의 실행자로서의 도주의 위치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 할 수 있다.

『도주께서 해인사에서 돌아오신 다음 날에 여러 종도들을 모아놓고 「상제께서 해인을 인패라고 말씀하셨다고 하여 어떤 물체로 생각함은 그릇된 생각이니라.해인은 면대 있지 않고 자기 장중(掌中)에 있느니라.우주 삼라 만상의 모든 이치의 근원이 바다에 있으므로 해인이요.해도 진인(海島眞人)이란 말이 있느니라.바다물을 보라.전부 전기이니라.물은 흘러 내려가나 오르는 성품을 갖고 있느니라. 삼라 만상의 근원이 수기를 흡수하여 성장하느니라.하늘은 삼십육천(三十六天)이 있어 상제께서 통솔하시며 전기를 맡으셔서 천지만물을 지배 자양하시니 뇌성보화천존상제(雷聲普化天尊上帝) 이시니라. 천상의 전기가 바닷물에 있었으니 바닷물의 전기로써 만물을 포장하느니라.」고 말씀하셨도다』(교운 2장 55절)

이와같은 천부적인 종통의 전수속에서 도주는 구천상제의 강세와 천지공사 그리고 화천의 연장선상에서 이미 1909년의 봉천명과 1917년의 감오득도 1925년의 무극도 창도속에 구천상제를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강성상제」로 봉안하고 종지의 선포를 통해 구천상제의 대의를 포교하는 초석을 세운 것

이다.

결국 포교와 관련해 볼 때 구천상제의 가르침을 펴기 위해서는 향후 포교를 할 종통계승자와 종단의 형태가 필요하고 종단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교리이며 이 교리가 종지로 선포된 것이다. 그리고 종지를 통해 일반 대중들에게 구천상제의 가르침이 대중들에게 알려지고 짜여진 천지공사의 도수가 이루어져 나간 것으로 요약된다.

Ⅲ. 新元의 時運과 宗旨

1923년 계해년에 道主는 傳敎를 선포하고 元을 새로이 정하여 九天上帝의 大巡眞理에 입각한 새로운 종교사상 출현의 시운적 배경을 제시했다.

新元의 선포와 함께 발표된 전교의 내용은 구천상제의 강세와 천지공사의 시운적 필요성을 4617년(1923년)간의 선천 역사에서 보여주는 토대가 된다. 전교는 9개의 원문과 그에대한 설명인 9개의 按으로 되어 있다.그중 아래의 傳敎내용은 시간의 단위에 대한 설명이다.

1. 일곱 번의 윤달이 19년 있는 것이 章이다. 27장은 이에 會에 해당된다.

살펴보건데 1년 사이에 윤달을 두면 날짜가 남고 2년 사이에 윤달을 두면 날짜가 부족하다. 19년에 이르러 7번의 윤달을 두면 남지도 부족하지도 않는다. 그러므로 19년으로써 1장을 삼았다.

27장은 1회가 된다. 1회는 무릇 513년이다. 맹자가 말한바 오백년에 반드시 왕도정치할 사람이 흥한다고 하니 이것이다.

2. 세 번의 회는 統이 된다. 3통은 元이 된다. 순환하고 왕복하는 것이 서로 강제성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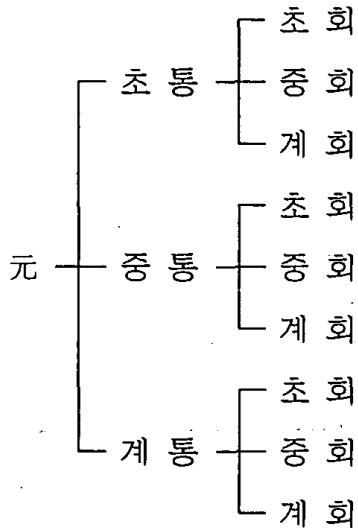
살펴보건대 1회가 각각 513년이면 3회는 합하여 1539년이다. 1통이 각각 1539년이면 3통은 합하여 4617년이다. 이것이 1원이 된다.(1. 七閏十九世爲章 二十七章是會當 按 間一年置閏則有餘日 間二年置閏則日不足及至十九年 置七閏則無餘不足 故以十九爲一章 二十七章爲一會 一會凡五百十三年也 孟子所謂五百年必有王者興者 此也 2.三會爲統 三統爲元 循環往復互無疆 按 一會各五百十三年則 三會合一千五百三十九年也 一統各一千五百三十九年 則三統合四千六百十七年 是爲一元)(교운 2장 42절)

傳敎의 원문 1과 2를 볼 때 시간의 단위는 元·統·會·章의 네가지로서

각각의 관계는 1元 = 3統 , 1統 = 3會, 1會 = 27章, 1章 = 19年(7閏) 이고 일정한 순환 주기가 존재함을 발견할 수 있다. 또 위의 元·統·會·章의 상호관계를 年으로 환산하면 1元 = 3統 = 9會 = 243章(9×27章) = 4617年(243×19年), 1統 = 3會 = 81章(3×27章) = 1539年(81×19年), 1會 = 27章 = 513年(27×19年), 1章 = 19年(7閏) 이다.

시간의 단위인 1元을 初統, 中統, 季統으로 하고 1통을 초회, 중회, 계회로 보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시간의 주기성이 나타나고 각 會의 시기마다 종교적 가르침과 관련된 주요 역사적 사실이 요약된다.(뒤 전교 3 ~ 9 내용)

(도표 1) 元·統·會의 관계(元=3統=9會)



元은 전교에서 구분된 시간 단위 가운데 가장 큰 단위이며 4617년이라는 元의 순환을 따라 새로운 시운이 열리기 때문에 도주는 1923년으로 한 주기를 마친 과거의 元을 마무리하고 과거의 1元을 정리하여 전교를 내린 것이다. 이것은 천도의 흐름을 따라 새로이 열리는 신원의 시기를 따라 구천상제의 천지공사에 맞춰 후천의 새질서를 정립해나가기 위한 것으로 시간의 순환에 따르는 우주관을 보여준다.

이와같은 도주가 발표한 원이라는 시간의 주기성과 순환성은 이전의 구천상제의 시운관과 통하고 있음을 찾을 수 있다.

구천상제는 시간의 순환에 따라 우주에 천지 성공의 시운속에서 개벽과

새로운 진리의 태동이 있음을 예시하고 인간의 각성과 義를 강조하였다.

『상제께서 「이후로는 천지가 성공하는 때라. 서신(西神)이 사명하여 만유를 제재하므로 모든 이치를 모아 크게 이루나니 이것이 곧 개혁이니라. 만물이 가을 바람에 따라 떨어지기도 하고 혹은 성숙도 되는 것과 같이 참된 자는 큰 열매를 얻고 그 수명이 길이 창성할 것이요. 거짓된 자는 말라 떨어져 길이 멸망하리라. 그러므로 신의 위엄을 떨쳐 불의를 숙청하기도 하며 혹은 인애를 베풀어 의로운 사람을 돕나니 복을 구하는 자와 삶을 구하는 자는 힘쓸 지어다.」라고 말씀하셨도다.』(예시 30절)

위 내용은 시운적으로 하늘과 땅이 성공하는 시대가 되었으며 과거의 시간속에서 선천을 열었던 개혁 이후로 시간이 흘러 이제 구천상제의 천지 공사의 도수를 따라 후천이 열리는 개혁이 일어나는 시운임을 보여준다.

또 『佛仙儒 一元數 六十 三合爲吉凶度數』(공사 3장 41절)의 내용도 유불선이 60을 주기로 하는 도수임을 밝힌 것으로 일정한 시간에 따라吉凶의 도수가 변하는 우주관이 나타난다.

이러한 시간의 주기적 흐름속에서 전교의 내용을 1원, 즉 초통·중통·계통의 세 부분으로 나눠 각 시기별 특징을 보면 다음과 같다.

3. 4617년전 정사년에 현원이 왕위에 올라 비로서 원이 시작되었다.

살펴보건대 황제는 지금으로부터 4617년전 정사년에 있었다. (上元甲前으로 계산)(3. 四千六百十七年前 丁巳 軒轅立極 肇斯元 按 黃帝 距今 四千六百十七年前 丁巳; 上元甲前計算)

4. 모든 상황과 모든 일이 다 여기에서 있었다. 여러 법과 여러 책이 전부 다 이것에 근원한다.

살펴보건대 천문지리 인사가 모두 황제가 처음으로 가리킨 것이고 사기책에 기록한 연대가 역시 황제로부터 시작한다. (4. 萬像萬事 皆有是 諸法諸書 總此源 按 天文地理人事 皆黃帝之所始教而 史記記年 亦自黃帝始也)

5. 소호 금천씨, 전욱 고양씨, 제곡 고신씨, 요, 순, 우 임금으로 전해져 초통 초회에는 대대로 성스러운 분이 계셨다.

살펴보건대 황제로부터 순, 우임금에 이르는 시간이 오백년이다. 초통 초회는 황제로서 시작하며 황제 원년으로 계산하여 순, 우임금에 이르기까지 513년이다. (5. 傳嚳項嚳助華禹 初統初會 世世聖 按 自黃帝至於舜禹 五百年矣 初統初會者 以黃帝爲始 則以黃帝元年計 以至於舜禹 五百十三年者也)

6. 태양이 뜨면 수많은 햇살이 함께 밝음을 발하고 봄이 돌아오면 물상들이 함께 화창하게 성장한다. 초통의 가운데를 지나 중회와 계회로 내려오면 성스러운 분이 이어지지 못하고 이어지더라도 다만 한때이다.

살펴보건대 초통은 황제이후 무릇 1539년을 말하고 513년 이후면 초통의 중회다. 1026년 이후면 초통의 계회다.(6.日出 萬暈同發明 春回 品物共華盛 初統之中 降中季 聖不承 承但一時 按 初統者 黃帝以後 凡一千五百三十九年之謂 而五百十三年以後 則初統之中會也 一千二十六年以後 則謂初統之季會也)

7. 우임금후에 탕임금, 탕임금 뒤에 문왕이 있었다. 1회에 한분의 성스러운 분이 회에 응한 기간이다. 중통으로부터 대대로 점차 내려가면 성스러운 분의 도가 행해지지 않고 다만 가르침만이 전해졌다.

살펴보건대 중통은 황제즉위 후 1539년 이후가 중통이 된다.(7. 禹後有湯 湯後文 一會一聖 應會期 中統由來 世漸降 聖不道行 但教傳 按 中統者 黃帝即位後 千五百三十九年以後 爲仲統也)

8. 석가모니 후에 공자가 있었고 공자 뒤에 야소가 있었다. 1회에 한 가르침이 각각 문화의 터전을 잡았다.

살펴보건대 석가모니는 지금으로부터 2950년전 계축생이다. (계해년으로부터 계산) 공자는 지금으로부터 2474년전 경술생이다. 야소는 지금으로부터 1923년전 신유생이다.(8. 釋後有孔 孔後耶 一會一教 各門筵 按 釋迦如來 距今二千九百五十年(癸亥年計) 癸丑生 孔子 距今二千四百七十四年 庚戌生 耶蘇 距今一千九百二十三年 辛酉生)

9. 계통시기에는 가르침이 역시 성스러운 분으로부터 시작되지 않고 오직 구술만이 있었고 성스러운 분이 끊어진 채 시간이 열려 왔다.

살펴보건대 계통은 황제즉위 후 3718년 이후가 계통이다. 지금으로부터 1500년전으로부터 육조와 신라시대에 불도가 중흥했고 그 후 오백년 지금으로부터 대략 1천년전 대송시대에 염락의 여러 현인들이 한 때 도를 전했다. 그 후 오백년 이후 라마법왕이 야소교로서 서양의 맹주가 되었다. 불은 양나라, 유는 송나라, 야는 라마에서 한 가르침이 한번 창성했는데 회의 운회를 맞춘 것이었다.(9. 季統 教亦無肇聖 惟有述 聖斷啓來 按 季統者 黃帝即位 後三千七十八年 以後之季統也 距今一千五百年前 六朝及新羅之時 佛道中興 其後五百年 距今略一千年前 大宋之時 濂洛諸賢 一時傳道 其後五百年以後 羅馬法王 以耶蘇教 爲西洋之盟主 佛梁 儒宋 耶羅馬 一教一昌 應會回)

위의 3~9까지의 전교 원문은 각 시기별 주요 神聖의 가르침과 종교의 변천을 정리한 것이다.

1923년 利在新元 이전의 元을 볼 때 元의 출발은 黃帝 軒轅씨로부터 시작

되며 이 시기가 元의 시작이 된다. 여러 법과 책이 모두 황제에 근원을 두고 있다고 초통 초회의 시기를 밝히고 있다.

전교에는 중통의 시기에는 聖人을 말할 수 없으며 다만 성인의 가르침만이 전해 오다가 석가모니, 공자, 야소가 차례로 세상에 교를 전했던 시기로 나타난다. 이 시기는 황제가 왕위에 오른 후, 1539년이 지난 때이다.

중통 초회의 시기는 1923년으로부터 2950년전에 석가모니가 태어나 가르침을 전했던 때가 된다. 중회에는 공자가 태어나 가르침을 펼친 시기이며 계회는 야소가 신유생으로 태어나 교를 전한 때이다.

시간대로 봤을 때 계통은 황제 즉위 후 3078년 이후부터 1923년까지이다. 이 시기도 역시 교가 성인으로부터 유래되지 못한 때이다. 오직 구술에 의하여 교가 전해오고 성인이 단절된 채 시간이 흘러왔다.

계통의 초회 시기는 1923년으로부터 계산해서 1539년전부터 1026년전까지이다. 전교는 1923년으로부터 1천 오백년전은 중국 육조시대와 신라때로 볼도가 증흥해 세상에 가르침을 펼쳤던 때라고 적고 있다.

다음으로 중국 육조시대와 신라시대로부터 오백년이 지나면 중국 송나라 시기가 나온다. 이 때에는 濂洛의 여러 賢人들이 성리학을 중심으로 한 시기동안 도를 전했던 기간이며 중회에 해당된다.

一元을 통해볼 때 9개의 회 중에 마지막 會인 계통의 계회기간에는 서양 라마법왕이 야소교를 기반으로 서양의 맹주역할을 했던 시기가 된다.

결론적으로 계통의 시기는 불은 양나라, 유는 송나라, 야소교는 로마를 중심으로 현창했던 때로서 하나의 교가 한 번 창성하는데 회의 주기를 따라 응한 것이 된다.

一元의 내용을 구천상제의 강세 및 敎運과 관련해 몇가지 연관성을 살피고 宗旨의 의미를 보기로 한다.

먼저 위의 傳敎에 등장하는 인물과 타 전경 구절을 통해 주요 인물을 중심으로 선천의 흐름을 정리하면 전교에 최초로 등장하는 인물은 황제이전의 천황-지황-인황-복희-신농과 전교의 황제-오제-우-탕-문왕-석가모니-공자-야소-이마두-염락제현들이다. 특히 구천상제의 천지공사와 깊이 관련된 인물로 季統 季會시기에 생존했던 이마두,진묵,최제우,전봉준,김일부등이 나타난다.

또 『천황 지황 인황후 천하의 대금산사 모악산아래 있는 금불이 능히 말하고 육장이나 되는 높이의 금불이 姜씨로 되었다. 모든 나라가 살아날 계책이 남조선에 있고 청풍명월의 금산사, 문명이 개화된 삼천 나라에 도술은 구만리에 통하네(天皇 地皇 人皇 後 天下之大金山 母岳山下에 金佛이 能言하고 六丈金佛이 化爲全女이라 萬國活計南朝鮮 淸風明月金山寺 文明開花三千國 道術運通九萬里)』(예시 14절) 라는 구절에서 구천상제의 천지 공사는 기간상으로 일단은 天皇, 地皇, 人皇으로부터 시작된 세상을 시운에 맞춰 개벽을 통해 고쳐 후천 선경을 만드는 공사이다.

또 天地公事는 거시적으로 『선천 개벽이후부터 수한(水旱)과 난리의 겹재가 번갈아 끊임없이 이 세상을 진탕하여 왔으나 아직 병겁은 크게 없었나니 앞으로는 병겁이 온 세상을 뒤덮어 누리에게 참상을 입히되 거기에서 구해낼 방책이 없으리니 모든 기이한 법과 진귀한 약품을 중히 여기지 말고 의통을 잘 알아 두라. 내가 천지 공사를 맡아 봄으로부터 이 동토에서 다른 겹재는 물리쳤으나 오직 병겁만은 남았으니 몸 돌이킬 여가가 없이 홍수가 밀려 오듯 하리라』(공사 1장 35절) 는 내용에서 先天 開闢으로부터 後天이 열리기 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九天上帝가 지적한 선천의 가장 큰 문제인 冤의 시작은 新元의 初統 初會 기간의 堯임금때의 丹朱의 冤과 관계된다.

그것은 『예로부터 쌓인 원을 풀고 원에 인해서 생긴 모든 불상사 없애고 영원한 평화를 이룩하는 공사를 행하시니라. 머리를 굽으면 몸이 움직이는 것과 같이 인류의 기록에 시작이고 冤의 역사의 첫 장인 堯의 아들 丹朱의 원을 풀면 그로부터 수천년 쌓인 원의 마디와 고가 풀리리라. 단주가 불초하다 하여 요가 舜에게 두 딸을 주고 천하를 전하니 단주는 원을 품고 마침내 순을 蒼梧에서 崩케 하고 두 왕비를 瀟湘江에 빠져 죽게 하였도다. 이로 부터 원의 뿌리가 세상에 박히고 세대의 추이에 따라 원의 종자가 퍼지고 퍼져서 이제는 천지에 가득 차서 인간이 파멸하게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인간을 파멸에서 건지려면 해원공사를 행하여야 되느니라』(공사 3장 4절) 고 전경에 기록돼 있고 堯의 아들 丹朱의 冤은 堯, 舜, 丹朱, 堯의 두 딸 아황 여형등과 관련되고 있다.

또 九天上帝의 강세를 신원과 관련해 보면 九天上帝의 강세는 神聖, 佛, 菩薩들의 하소연으로 이루어졌다.(예시 1절)

여기에서 신성 불 보살의 하소연 시기를 보면 이마두가 1610년에 죽었으므로 이마두가 文明神을 거느리고 서양으로가 문운을 연 시기는 17C초가 된다. 17C초부터 열린 서양의 문명 발달과 그 폐단으로 신성, 불, 보살이 하소연했던 시기는 거시적으로 당연히 이마두가 죽은 해인 1610년 이후부터 구천상제 강세의 해인 1871년 사이이고 계통 계획시기로 「전교」의 내용으로 볼 때 羅馬法王이 耶蘇敎로서 서양의 맹주가 된 때이다.

한편 신성, 불, 보살들의 하소연의 이유는 이마두(마테오 리치) 신부가 사후에 동양 문명신을 거느리고가 열었던 서양 문명이 물질에 치우쳐 신도의 권위를 떨어뜨려 천도와 인사의 상도가 어겨짐으로써 구천상제가 아니면 혼란에 빠진 천지를 바로 잡을 수 없어서임을 전경은 적고있다.

역사적으로 야소교가 동서양에 널리 전파되어 교세를 펴고 있을 때 함께 발달되던 서양 물질 문명은 자연 환경파괴, 인간성 상실, 인간중심주의 사고 속에서 인류 역사에 심각한 폐단을 일으켜 기존 常道를 무너뜨리고 天地人 삼계에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었다. 여기에 현실적으로 계통 계획의 기간에 응해 일어났던 西敎의 창성과 기존 종교사상으로도 서양 물질 문명의 폐단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利在新元을 하기 전의 元이 마무리 된다고 했을 때 그후의 세상의 질서는 누가 어떤 가르침으로 제도할 것이냐 하는 점이다.

이처럼 무극도 창도이전의 상황을 볼 때 이로움이 신원에 있음과 일원 4617년을 정리한 전교의 내용은 새로운 시운과 함께 향후 새로운 종교사상의 출현이 필요함을 보인 것이다. 즉 道主는 전교를 통해 1원 즉 4617년을 주기로 운회하는 시간속에서 인간세상에 태어나는 성인의 조밀성과 종교 가르침의 주기성을 언급하여 2년후(1925) 창도될 무극도의 운세적 창도 필연성을 암시하였던 것이다.(高南植.1996:432~435)

나아가 신원의 제정과 함께 전교를 공표한 것이 지나간 원과 그 원속에서 가르침을 전했던 성인 및 종교의 한 여정을 마무리 짓고 이제 새롭게 인간

세상에 구천상제의 대순하신 진리에 입각한 도가 뿌리내려지게 됨을 예시하는 것이다.

一元과 傳敎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볼 때 선천역사에서 계통 계획시기에는 소정의 시간이 마무리되며 성스러운 인물과 종교적 가르침이 끊기고 변화가 일어난다는 시운관이 나타난다.

이러한 상황하에 4617년간의 1원의 시기는 선후천 교체기로 맞물려 선천 역사에서 현 시대와 긴밀히 연결되며 구천상제의 강세와 선천의 폐단인 상극을 낳게 한 원의 태동 및 천지공사 그리고 종통계승속에서 종지의 출현을 있게 한 전환의 시간대로 대순사상속에 위치하고 있다.

여기에서 선천 기간중 황제로부터 야소교까지의 신성의 가르침과 주요 종교의 변천을 정리해 적고 있는 전교를 「利在新元」과 함께 道主가 발표한 것은 新元이 후천 선경의 새로운 진리를 세우기 위한 전초적 작업으로 천지성공의 전환기적 시운에 맞춘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것은 50년 공부과정중 新元이 제정된 하나의 의미가 된다.

결국 종지의 제정은 구천상제의 천지공사를 연원으로하는 도주의 50년 공부과정에서 1923년 新元의 시기를 맞춰 새로운 후천선경의 질서를 여는 구천상제의 도수 조정공사속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삼계가 혼란해 도의 근원이 끊어지던 시기에 신성, 불,보살의 하소연으로 구천상제의 강세(1871년)와 천지 공사(1901년~1909년)가 이루어졌고 구천상제의 화천과 함께 구천상제의 대순한 진리를 포교할 시운과 종단체계의 교리규정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무극도의 창도하에 구천상제의 천지공사의 大志를 체계화시켜 敎理의 요지로 선포해 대중들에게 제시할 목적으로 元이라는 시간의 순환이 새로이 시작되는 시기에(1923년) 宗旨로서 요체화되어 발표된 것으로 요약된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선천의 주요 역사적 사실을 전경을 중심으로 구천상제의 大巡과 전교의 내용을 종합해 정리하면 논문 뒤 편의 도표와 같다.

IV. 宗旨 制定과 宗統

50년 공부는 구천상제의 종통이 도주에게로 전수된 정통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앞장에서 구천상제는 천지공사를 마치고 포교 50년공부를 밝혔으며 구천상제의 가르침을 펴는 일이 향후 50년동안의 공부로서 있게 되고 그것을 통해 포교의 기틀이 마쳐짐을 보았다.

종지의 제정이 종통과 관계됨을 보기 위해서는 종지 제정이전의 일정기간이 계속적으로 종통과 관계된 구체적 사실이 언급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본장에서는 봉천명에서 종지제정까지의 일련의 과정에서 나타난 종통계승의 면을 찾아봄으로써 종지와 종통의 연관성을 보기로 한다.

종지 제정이전의 종통의 면은 봉천명, 득도, 득도후 무극도의 창도로 나누어 살펴 보기로 한다.

1. 奉天命과 布教 50年 工夫의 시작

道主는 日帝의 을사보호 조약에 반대하는 祖父의 영향아래서 자라났으며

도주의 부친은 성함이 趙鏞模이고 자함은 順弼이고 호는 復宇이며 조부는 弘文館正字로 있다가 을사년의 국운이 기울어감에 통탄한 나머지 피를 토하고 분사하였도다.(교운 2장 2절)

독립운동에 뜻을 둔 부친을 따라 만주 봉천으로 1909년에 가게 된다.

도주께서 기유년(十五世時) 四月 二十八일에 부친과 함께 고국을 떠나 이국땅인 만주에 가셨도다.(교운 2장 4절)

이와 같은 도주의 봉천으로의 출발은 앞장에서 이미 언급했던 바와 같이 구천상제의 포교 50년 공부종필 공사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었다.

도주는 봉천에 간 후 서양 제국주의 열강과 일제의 침략주의에 의해 동양 천지가 소용돌이치는 혼란속에서 구세제민의 뜻을 갖고 입산공부에 진력하였다.

이 공부는 도주의 50년공부의 9년간 과정으로

『도주께서는 경술년에 어린 몸으로 나라에 충성하는 마음에서 일본 군병과 말다툼을 하셨으며 이듬 해 清朝 말기에 조직된 保皇黨員이란 혐의를 받고 北京에 압송되었다가 무혐의로 풀려난 엄친의 파란 곡절의 생애에 가슴을 태우고 고국만이 아니라 동양 천지가 소용돌이치는 속에서 구세 제민의 큰 뜻을 가슴에 품고 입산 공부에 진력하셨도다.』 (교운 2장 5절)

에 나타나듯 당시 일제의 침탈이라는 조선의 현실을 극복하려는 면에서 있었다.

위에서 나타나듯 도주는 祖父가 1905년에 을사보호 조약에 반대하다 憤死하자 1909년 부친을 따라 만주 봉천으로 갔으며 그곳에서 9년간을 오로지 구국제민과 구세제민의 일념으로 공부했다. 이 9년간의 공부는 구천상제의 삼계 대순의 진리를 아직 모르는 도주 자신의 정진속에서 행해졌으며 포교 50년 공부의 시작이었다.

이기간 동안에는 종통 계승자가 아직 자기 자신이 종통계승자임을 모르는 상황이었으며 종통 계승자가 구천상제의 삼계 대순의 진리를 감오득도하여 도수를 풀어 나가기 위한 준비 단계로서 마련된 공부 기간이라 할 수 있다.

결국 1909년에서 1917년까지의 9년간의 기간에서는 종통 계승자가 종통을 전해준 사람을 알고 종통을 이어 직접적으로 일을 해나간 것은 아니지만 그 자체 또한 구천상제가 짜놓은 50년 도수의 한 단계인 것이다.

또 이 기간은 봉천명한 만주 봉천에서 도를 계시로써 전수받게 되는 순간까지 종통 계승자 자신의 각고의 수양과 다양한 인내의 공부가 있어야만 하는 구천상제의 天地公事속에 이미 예정된 시간이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것은 도주사상의 근원적 밑바탕이 구천상제의 50년 공부 종필이라는 공사에 따라 종통을 받는데 기저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2. 구천상제의 계시로 득도

한일합방이후에도 많은 사회 단체와 종단들이 대내외적으로 조국의 독립을 위해 활동하고 있었다. 이때 도주는 대순진리를 감오득도하고 이후 자신의 천하를 구하기 위한 우주적 차원의 제반 문제의 해결을 구천상제의 대순한 진리를 맞춰 구세제민의 대의를 펴게 된다.

1909년 만주 봉천으로 간 도주는 9년 공부의 끝인 1917년에 구세제민할 大道를 깨닫게 된다.

도주께서 어느날 공부실에서 공부에 전력을 다하시던 중 한 신인이 나타나 글이 쓰인 종이를 보이며 “이것을 외우면 救世濟民 하리라”고 말씀하시기에 도주께서 禮를 갖추려 하시니 그 신인은 보이지 않았으며, 그 글은 “侍天主造化定 永世不忘萬事知 至氣今至願爲大降” 이었도다.(교운 2장 7절)

그런데 이 득도에서 주목할 점은 도주가 얻은 道가 누구로부터 받은 것이며 그 도의 진리가 어떠한 것이었느냐에 있다. 그리고 이 득도에 의해 얻은 도가 도주 자신의 독창적 교리에 입각한 도가 아니라는 점에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

道主의 得道는 개인적 차원의 도의 창도가 아닌 神人이라는 대상으로부터 진리를 감오득도하게 되며 도를 내려준 신인은 바로 1909년 화천했던 구천상제라는 점이 득도에 있어 중요하다.

이로인해 도주는 구천상제로부터 자신에게 이어지는 종통을 알게 되고 도주 자신의 창도의 모든 방향성을 구천상제가 인세에 39년간 있으면서 펼쳤던 대순진리를 그 기저로 하게 되는 것이다. 즉 도주의 구세제민의 사상적 토대를 결정 짓는 중대한 계기는 구천상제의 대순한 진리를 따라 宗統을 이어 得道한 데 있는 것이다.

결국 교운사를 볼 때 도주에게 내려진 1917년(정사년)의 계시는 종교활동의 요체와 목적등을 결정짓는 가장 극적인 전환점을 이루는 대사건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도주의 득도는 구천상제가 밝힌 대로 구천상제의 가르침이 50년 공부를 따라 마치어 마무리 되는 「布教 50年工夫終畢」이라는 천지공사의 도수를 맞춰 이루어진 것이었다. 이후 도주는 자신이 가졌던 구세제민의 모든 뜻을 50년 공부에서 1909년 봉천명으로부터 9년의 공부 끝에 구세제민하기 위해 선천 세상에 펼쳐야 될 대도를 알고 향후 41년의 공부를 구천상제의 계시를 따라 도수에 맞춰 행하게 된다.

이러한 천부적인 계시를 통해 종통을 계승받고 도주는 자신의 구세제민의

대소망을 현실적으로 실현시켜 나가는 것이다.

다음으로 득도후의 창도에 관한 내용을 보기로 한다.

3. 創道

도주는 1917년 계시를 받아 득도한 후 1925년까지 9년간의 창도작업을 마무리하고 1924년에 도장을 세운 후 다음 해인 1925년에 무극도를 창도하게 된다.

을축년에 舊泰仁 道昌峴에 도장이 이룩되니 이 때 도주께서 無極道를 창도하시고 상제를 九天應元雷聲普化天尊上帝로 봉안하고 宗旨 및 信條와 目的을 정하셨도다.(교운 2장 32절)

앞에서 본 바와같이 구천상제로부터 계시로 도가 전해지고 『포교 50년 공부종필』의 공사에 따라 도주가 도를 펼침으로써 50년 공부의 한 단계를 장식한 무극도 또한 당연히 구천상제의 대순한 진리에 근본을 두고 전개되며 여기에서 중지가 중심적 내용이 된다.

그리고 무극도 창도과정속에서 구천상제와 도주의 종통의 연관성을 보면 다음과 같다.

구천상제의 대순한 진리가 계시로 도주에게 종통을 따라 이어진 후 도주는 만주로부터 고국에 돌아와 구세제민의 활동을 행하게 된다.

그 활동은 구천상제의 유적지를 답렵하며 천명을 받는 것과 도주 자신의 도수공부 및 신도들에게 내린 훈교이다. 좀더 자세히 보면, 구천상제 재세시의 여정을 밟아 나가며 도수공부를 하는 일과 구천상제의 유품과 유물을 받아 짜여진 度數를 푸는 것으로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구천상제의 유적지를 踏躐하다>

1917년 고국에 돌아 온 도주는 2년간에 걸쳐 원평, 동곡약방, 대원사 등 구천상제가 재세시에 천지공사를 보았던 공사지를 찾고 天命을 따른다.

< 封禪를 받음 >

도주는 1919년 구천상제의 봉서를 구천상제 生時의 명에 따라 선돌부인으로

로부터 받게 된다.

도주께서 다음 해 정월 보름에 이치복(호:석정)을 앞세우고 정음 馬洞 김기부의 집에 이르러 대사모님과 상제의 누이동생 선돌부인과 따님 舜任을 만나셨도다. 선돌부인은 특히 반겨 맞아들이면서 “상제께서 재세시에 늘 을미생이 정월 보름에 찾을 것이로다”라고 말씀하셨음을 아뢰이니라. 부인은 封書를 도주께 내어드리면서 “이제 내가 맡은 바를 다 하였도다”하며 안심하는도다. 도주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이곳에 보름 동안 머무시다가 황새마을로 오셨도다.(교운 2장 13절)

이것은 종통계승이 이미 구천상제의 화천전에 천부적으로 정해진 것이었음을 확연히 보여 주는 내용이다.

< 通經의 入手 >

도주는 선돌부인의 말에 따라 천지조화의 둔계를 보천교로부터 가져 온다. 후에 둔계는

도주께서 경신년에 재실에서 밤낮으로 불면 불식하면서 공부하시던 중 이월 열 이레에 둔계가 봉안된 곳에서 벼락소리가 나더니 둔계가 저절로 열려져 있었도다. 그 속에 호피 한장과 반쯤 편 국화 한 송이가 그려 있고 羊血 스물넉점이 궤에 찍혀있고 五江錄 팔문둔갑 舌門이란 글자가 궤에 쓰여 있었도다. 그후 둔계는 도주께서 함안 伴鷗亭에서 공부하실 때 그곳에 옮겨졌도다. 그러나 당시 심복자이던 창원 사람 曹周一이 둔계를 훔쳐 갔는데 훗날에 종도들이 이를 알고 매우 안타까와하니 도주께서 “그 시기의 도수에 쓰였으면 족하니라. 둔계의 둔자는 도망 둔자이도다”고 그들에게 이르셨도다.(교운 2장 13절)

라는 구절에서 나타나듯 벼락소리속에 저절로 열려지고 그속에 있었던 물품들이 천기적으로 드러난다.

이상에서 교운사 가운데 구천상제의 종통계승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찾을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 한 인물이 한 집단의 일을 물려 주려 할 때에 후계자가 결정되는 것이 통례이다.

그러나 구천상제 종통계승은 직접 제세시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구천상제 제세시에 구천상제를 따랐던 종도들이 많았으나 그들에게 종통이 전해지지 않은 것이다. 구천상제의 종통은 당시 구천상제를 직접 따랐던 사람들이 아

닌 다른 인물에게 종통이 계승된 것이다.

종통이 구천상제를 추앙하던 종도이외의 인물에게 전해진 근거는 첫째 화천할 때까지 종통을 받을 사람을 선정해 주지 않았다는 점이다. 구천상제는 화천할 즈음 종도들을 자주 불러 예시하였으나 직접 종통계승자를 정하지 않았다. 다만 종통과 관련지어 생각할 수 있는 대두목 공사를 보았다.

여기에서 우리는 종통이 공사를 통해 계승됨을 볼 수 있으며 그 종통은 직접 구천상제를 따랐던 종도들이 아닌 다른 인물에게 전수되어짐을 알 수 있다.

둘째 구천상제의 종통은 공사속에서 이루어졌으므로 계승자가 자기 자신도 모르게 이미 종통의 계승자로서 그 종통계승의 공사에 따라 움직여지게 된다. 이점은 도주가 1909년에 봉천명을 하고 1917년 感悟得道前까지 행한 공부를 통해 알 수 있다.

셋째 구천상제는 啓示로써 종통계승자를 알려 주고 계시로써 자신의 생전의 주요 공사지를 답렴시키고 종통 계승자에게 전해 주기 위한 증표로써 생전에 기록했던 봉합된 서신을 전해준다.

다음으로 도주의 종지 선포이전과 종지 선포이후의 행적 및 도수에 따른 50년공부 또한 종통의 면을 보여주는 것으로 종지 선포 전,후의 공부가 차이점이 보인다.

무극도 창도이전에는 1909년의 봉천명으로부터 1925년까지 구천상제의 천명과 계시속에 구천상제의 신격위를 밝히는 등 종통전수를 중심으로 대부분의 공부가 진행됨을 볼 수 있다.

<무극도 창도이전 공부>

연도	공부내용
1909	奉天命.奉天命이후 9년간 공부 시작
1917	九天上帝의 三界大巡의 眞理 感悟得道 宇一齋에서의 공부
1919	구천상제가 재세시 전했던 봉서를 선돌부인으로부터 전수받음. 굴마위에서 공부
1920	대원사 백일도수 공부
1922	납월, 복현무도수 공부
1923	新元제정 전교발표. 둔, 단도수 공부, 진인보두법 공부
1924	泰仁에 道場 건립.폐백도수 공부
1925	구천상제 봉안. 종지,신조,목적 발표

한편 무극도에서 신앙의 대상이 구천상제로 봉안되고 종지가 선포된 후에는 종통의 확고한 계승속에 도주가 행해야할 도수에 따르는 공부와 2차적 단계로 覺道文 布諭文의 발표하에 도인들을 위한 공부 범방을 선포하는 면으로 나타나고 있다.

<무극도 창도 - 50년공부종필까지 주요공부>

연도	공부내용
1925	각도문 선포,육정신장응기, 토지해원(간사지 개척) 홍일우에서 공부
1926	담뱃대 도수 공부, 서울에서 공부
1927	주농는 공부
1941	인덕도수, 잠복도수 공부
1957	도인의 공부 범방 선포(侍學,侍法)
1959	50년 공부 종필후 化天

위에서 도표상의 공부를 보면 신원의 제정과 구천상제의 봉안속에 인류에게 필요한 새로운 후천세계의 진리로서 종지를 선포하고 그후에 50년 포교

공부는 종통 계승자로서 구천상제 천지공사의 도수를 풀어나가는 공부라 진 행되어졌음을 볼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보면 无極道는 도를 알릴 도장의 건립과 구천상제의 공사 에 따라 인세에서 친히 펼친 대우주적 차원의 대순진리를 구체적으로 포교 할 목적으로 신앙의 대상, 종지, 신조, 목적등의 체계속에 창도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무극도의 창도와 종지 선포 또한 구천상제의 유훈을 계승 우주적 차원에서 단행된 것이었으며 1909년의 봉천명으로부터 종지가 선포되던 1925년까지의 기간은 구천상제의 공사를 따른 시간으로 무극도의 방향성은 구천상제의 지속적인 계시와 그 계시를 도수에 따라 봉명하는 도주의 행적 을 맞춰 정해지게 된다.

무엇보다 敎運史에서 无極道の 創道하에 종지의 제정은 단지 당시의 대내 외적인 현실문제에 국한되어 도주에 의해 새로이 창시된 것이 아니라 구천 상제의 계시에 의한 감오득도속에서 이루어진 일로 그 의미는 종통계승이라 는 면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는 것이 특색이다.

특히 도주의 득도는 개인적인 차원의 수행속에 새로운 도를 창도한 것이 아니며 또한 과거 구천상제가 최수운에게 천명과 신교를 내려 구세제민할 기회를 열어 놓은 것과는 전혀 다른 도수인 50년공부, 대두목 공사등의 구 천상제의 천지공사를 뒤이어 종통을 계승한 인물로서 확고한 교리체계를 이 루는 종지제정과 연결돼 있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하에 선포된 종지는 당연히 종통계승의 역사를 보여주는 증거 이고 이점이 종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주지해야 될 사항이라 할 수 있 다. 종통의 연관성을 보기위해 典經 교운 2장에서의 구천상제와 도주의 관 련 내용을 논문 뒷편에 수록하였다.

V. 宗旨 내용과 宗統

1925년에 발표된 宗旨는 구천상제의 종통을 계승한 도주가 선포한 것으로 천지공사의 大志를 핵심적으로 담고 있다. 종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 배경

하에 정립되었다.

종지의 배경은 종통의 계승하에 구천상제 천지공사와 배경을 같이 한다.

따라서 무극도 종지 출현의 근원적 배경은 구천상제의 종교사상 출현의 배경과 서로 통하고 있다.

또 조정산 도주가 구천상제의 계시로 삼계 대순의 진리를 感悟得道한 점과 무극도의 신앙의 대상이 구천상제인 것은 무극도의 종지가 구천상제의 종교사상을 배경으로 하고 있음을 역시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 구천상제가 인세에 강세해 천지공사를 단행하게된 배경은 신계 신성불 보살의 하소연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다. 신성불 보살의 하소연은 물질문명에 의한 삼계질서의 혼란이라는 인계 문제에 기인한다. 구천상제 종교사상출현의 배경이 된다.

종지 출현의 또 다른 배경은 외세의 문호개방 요구와 그속에서 일어났던 조선의 당시 상황이다. 이러한 이유로 무극도의 전개과정과 목적은 구천상제가 39년동안 인세에서 펼쳤던 사상을 근원으로 함은 자명하다.

구천상제가 펼친 진리의 근간은 天地人 三界라는 우주적 차원의 것이고 신과 인간의 원을 푸는 해원상생의 법리와 인류 이상향인 후천선경 건설에 있었다.

따라서 무극도 종지의 내용은 당시에 있었던 천도교나 대종교등과는 다른 면모를 갖고 있었다. 그것은 시대적으로 국권을 잃어 버린 상황하에서 정치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전개되었던 각 종단 및 사회단체의 활동과는 다른 전 우주적 차원의 교리를 펼쳤다는 것이다.

그 주장하는 교리의 방향성과 폭이 다르고 특수했던 것은 구천상제가 행한 천지공사가 그러했듯이 전우주적인 차원이어서이다.

그러나 무극도 종지의 방향성이 특수하다고 해서 현실과 민족의 아픔을 등한시하고 무시한 것은 아니었다.

무극도는 우리나라 전북 구태인 도창현에서 창도되었다. 외세의 압력속에 19세기말 민중의 자주적 내부 개혁의 몸부림인 동학란이 실패로 돌아간 후 민중의 이데올로기는 새로이 정립되지 못한 채 일제치하 국권상실이라는 어두운 역사의 그늘아래 놓여져 있었다. 더우기 기미독립운동이 실패로 돌아

간 후 민족은 국외로 흩어지고 간간이 독립운동의 소식이 들려올 뿐이었다.

이러한 현실속에서 무극도는 당시 민중의 아픔을 포용하며 구천상제의 삼계 대순이라는 더 높은 차원의 진리로 우주와 세계, 신명과 인간을 통찰하여 모순과 비리, 재화와 참극이 난무하는 진멸의 세상을 뜯어 고쳐 인류의 이상향인 도가 통하는 진경을 만들고자 새로운 今不聞 古不聞의 道를 이루고자 활동했었다.

종지의 내용인 음양합덕 신인조화 해원상생 도통진경은 그점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종지의 네가지 항목의 의미는 구천상제의 선천에 대한 진단과 후천 이상세계에 대한 예시에서 출현 배경을 찾을 수 있다.

상제께서 “선천에서는 인간 사물이 모두 상극에 지배되어 세상이 원한이 쌓이고 맺혀 삼계를 채웠으니 천지가 常道를 잃고 갖가지의 재화가 일어나고 세상은 참혹하게 되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천지의 도수를 정리하고 신명을 조화하여 만고의 원한을 풀고 相生의 도로 후천의 선경을 세워서 세계의 민생을 건지려 하노라. 무릇 크고 작은 일을 가리지 않고 신도로부터 원을 물어야 하느니라. 먼저 도수를 굳건히 하여 조화하면 그것이 기틀이 되어 인사가 저절로 이룩될 것이니라. 이것이 곧 三界公事이니라”고 김 형렬에게 말씀하시고 그중의 冥府公事의 일부를 착수하셨도다.(공사 1장 3절)

위에서 선천의 문제는 상극의 지배로 원한이 맺혀 나타났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천지가 상도를 잃고 재화가 일어나 세상의 참혹함이 발생한 것으로 설명된다.

상극의 지배는 우주 공간의 근원적 기운인 음양의 상극으로 바꾸어 말할 수 있다.음양의 상극은 정음정양화되지 못한 음양관계로서 우주에 불평등 부조화를 야기시켰다.

선천의 문제는 이처럼 음양의 대대적 관계에 맞춰 진단되었다.음양개념이 天地와 神人の 일에 밀접히 작용한다는 것과 선천문제가 음양관계의 균형의 파괴에서 나왔다는 점은 천지인 삼계의 궁극적 원리인 도가 음양과 밀접히 연관됨을 보여준다.

천지공사를 역사하는 기점이 되는 선천 문제의 진단은 정신과 물질이라는 음양의 불균형에서 파생됐으며 이러한 상황은 나아가 신계와 인계사이에 존

재해은 음양적 常道를 역시 무너트렸다.

정신문명과 물질문명이 균형을 이루고 신계와 인간계의 상도가 음양으로 조화를 이루어 존재하게 되는데 인간들의 교만과 자연정복으로 인해 음으로서의 신의 세계의 권위가 떨어졌으며 이로써 신계와 인계간의 음양조화의 常道가 무너진 것이다.

『상제께서 어느 날 김 형렬에게 가라사대 “서양인 利瑪竇가 동양에 와서 지상 천국을 세우려 하였으되 오랫동안 뿌리를 박은 유교의 폐습으로 쉽사리 개혁할 수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도다. 다만 천상과 지하의 경계를 개방하여 제각기의 지역을 굳게 지켜 서로 넘나들지 못하던 신명을 서로 왕래케 하고 그가 사후에 동양의 文明神을 거느리고 서양에 가서 文運을 열었느니라. 이로부터 지하신은 천상의 모든 묘법을 본받아 인세에 그것을 베풀었노라. 서양의 모든 문물은 천국의 모형을 본딴 것이라” 이르시고 “그 문명은 물질에 치우쳐서 도리어 인류의 교만을 조장하고 마침내 천리를 흔들고 자연을 정복하려는 데서 모든 죄악을 끊임없이 저질러 신도의 권위를 떨어뜨렸으므로 천도와 인사의 상도가 어겨지고 삼계가 혼란하여 도의 근원이 끊어지게 되니 원시의 모든 신성과 불과 보살이 회집하여 인류와 신명계의 이 겁역을 구천에 하소연하므로 내가 西洋 大法國 天啓塔에 내려게 하였다. 천하를 大巡하다가 이 東土에 그쳐 母岳山 金山寺 三層展 彌勒金佛에 이르러 三十年을 지내다가…….』(교운 1장 9절)

利在新元和 관련 계통 계획의 시기에 나타난 문제점은 위의 예문에 나타나듯 음양관계의 부조화로부터 일어난 것이고 이러한 문제점을 고치기위해 구천상제는 천지공사를 단행하였다. 그리고 그 해결책이 구천상제의 화천후도주의 50년 공부과정에서 「음양합덕」 「신인조화」라는 무극도의 종지로 표출되었다.

다음으로 앞의 공사 1장 3절에서 구천상제가 지적한 문제는 선천에서 인간과 사물이 모두 상극 원리로 지배되어 원한이 생겼으며 이로인해 常道가 무너지게 된 일이었다.

음양의 상극은 음양에서 파생된 五行관계에서도 역시 상호간 상극성을 낳게 하였다.(高南植.1992:232)

우주를 지배하는 근원적 양의인 음양과 오행의 상극으로 인한 시비와 대립은 결국 원한을 만들어 냈고 맺힌 원한은 삼계의 상도를 파괴해 세상에

재화와 파탄을 일으킨 것이다.

이에 따라 무극도의 종지는 「解冤相生」의 원리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위와같은 상극과 상극으로부터 야기된 원을 없앤다는 교의를 담고 있다.

또 종지의 「道通眞境」은 공사 1장 3절의 後天仙境과 통하는 것이고 무극도의 목적인 「세계개벽 지상천국건설」의 내용과 맥을 같이 한다. 종지에서 제시한 내용인 음과 양,신과 인의 합덕, 조화, 상생을 통해 도통진경의 길이 열리는 것으로 설명된다.

그러면 무극도의 종지를 구천상제의 천지공사의 大志와 연결지어 종통의 연관성을 보기로 한다. 본장에서는 각각의 종지 내용을 고찰함으로써 종지의 연원이 구천상제의 천지공사와 연계됨을 찾고자 한다.

1. 陰陽合德

구천상제는 음양을 우주의 근본이치로 설명하였으며 천지공사에서 음양의 원리를 토대로 각종의 문제점들을 처결하였다.(高南植.1997A:382) 무극도는 이러한 점을 이어 음양합덕을 종지로 교리화한 것이다.

구천상제는 후천 오만년 첫 공사를 시행하였는데 그 공사가 음양공사이다. 萬事가 음양으로부터 일어나고 음과 양은 생쇄의 도를 갖고 존재해 만물을 존재케 한다고 하여 모든 일을 살피는데 있어서도 음양관계를 필히 알아야 됨을 강조하였다.

구천상제가 언급한 음양의 원리는 종지의 음양합덕으로 표출되었으며 총체적으로 神과 人의 調化 역시 음양과 관련이 있음을 밝힌 「陰陽經」으로 나타나고 있다.

천지의 일은 모두 이 음양가운데 성공이 있고 만물의 이치도 모두 이 음양가운데 이루어진다. 천지는 음양으로써 변화를 이루고 신인도 음양으로써 조화를 성공한다.(天地之事 皆是陰陽中有成 萬物之理 皆是陰陽中有遂 天地以陰陽成變化 神人以陰陽成造化)(교운 2장 42절:陰陽經)

위 내용은 우주 만상의 원리가 음양관계속에서 존재성을 갖게 되며 신과 인의 조화도 음양의 이치하에서 있게됨을 보여준다.

天地人の三界가 陰陽의 원리하에 운행되고 있으며 이 음양원리는 調化작용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調化의 원리는 선천문제의 해결이 선행될 때 이루어진다. 선천문제는 음양관계와 관련 되며 음양 상극으로 야기된 冤으로 삼계가 겁액에 빠져 나타나게 되었고 이것은 종지의 解冤相生과도 연계된다.

음양합덕과 신인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원의 해소와 음양의 올바른(正) 관계가 정립되어야 한다. 즉 해원을 통해 음양관계의 양자가 정음정양화 되어 調和해야 되며 이러한 토대위에서 신과 인의 造化는 정음정양화된 음양을 調理하고 統制해 진행된다.

한편 陰陽관계에 있어 중요한 것은 正陰正陽이다. 이것은 음양 상호간의 균등성을 확립시키는 것이며 이러한 음양관계로 합덕을 이루어 우주 삼라만상을 존재케 하는 것이 우주의 순환원리이며 진리이다.

2. 神人調化

우주는 신과 인이 서로 음양관계로 존재하는 공간이다. 이러한 신인의 관계사이에 있었던 신도에 의한 질서를 바로 잡기위해 구천상제는 강세하였으며, 신도의 회복을 이루기위해 천지공사에서 신과 함께 우주적 일들을 처결했다.

천지공사는 인류와 신명계의 겁액을 없애 구원하는 일이었다. 신명계와 인간계는 각각 착란과 무도에 빠져 있었으며 인간계는 신들의 재앙이 존재해 있었다.

이러한 현실을 고쳐 바로 잡아 신과 인간이 상호 화평속에 공존할 수 있는 우주를 구천상제는 이루고자 하였다.

종지에서 신과 인간의 관계는 調化로 설명되고 調化는 調和와 造化가 결합된 것이다. 調化란 신인관계의 평등과 화합을 이루어 우주의 운행속에서 神道를 회복해 이루어지는 것이다.(高南植A.1997:441~442)

무극도는 선천의 겁액을 없애기 위해 신명계와 인간계를 함께 연결하는 차원에서 도의 진리가 진행되어진다.

인간세상에 도가 있다고 해서 인간의 구원만을 위해 안주하려는 진리가

아니다. 삼계를 모두 통괄해 천지공사의 대역사를 도수를 따라 이루어나가는 도이다.

인간세계는 물론이고 신명세계까지 바로 잡아 단절되었던 신과 인간이 구천상제의 천지공사속에서 이제 상극의 과거를 청산하고 함께 고루 평화롭게 상생하는 조화를 이루고자 무극도는 신인조화를 주장하였다.

3. 解冤相生

구천상제는 상극의 선천세상에 영원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만고의 원을 풀어야됨을 밝히고 단주의 원으로부터 해원을 해나갔다. 또 이러한 해원의 차원을 지나 상생의 원리를 확립시켜 도통진경의 후천선경을 이루는 것이 구천상제 강세의 궁극적 목적임을 밝혔다.

구천상제 천지공사의 대표적 원리였다. 특히 冤을 풀고 서로 함께 사는 세계의 구현은 무극도는 구천상제로부터 계시로 종통을 계승한 도주가 창도한 종단이므로 무극도의 종지에 『해원상생』은 「음양합덕 신인조화 도통진경」과 달리 용어 그대로 수용돼 있다.

선천에서는 음양의 불균등, 불평등에서 소외계층들이 차별화되어 원과 척이 맺힌 것이 무엇보다 선결되어야할 최대의 문제였다. 그리고 우주는 어느 일방에 원이 없는 질서체계가 정립될 때 상생이 이루어지고 해원공사를 통해 원과 척을 해소함으로써 정음정양의 균등한 음양관계가 확립되어 조화를 만들 수 있게 된다.(高南植.1998B:632~633)

먼저 神界의 調和는 명부차란으로 인한 원의 해소로 시작되며 명부 神들의 조정은 人界문제 해소의 근원이다.

神과 관련이 있는 天과 地의 관계에서 地는 음이 되고 음인 地는 선천시대에 양인 天에 대해 상대적으로 비하된 상태에 있었으나 이제 地의 위상이 회복된다.

人界의 調和를 이루는 해원공사는 불평등 불균형하에 존재해 왔던 계층들을 해원케하는 공사를 통해 처결된다.

男과 女로 볼 때 음이 되는 여인의 공덕을 세우는 공사를 봄으로써 남존여비라는 억음존양의 논리가 무너진다.또한 사회적 신분적으로 억눌려 원과

척을 갖고 있던 천인계층에 대한 해원 공사도 이루어졌다.

이와함께 조선조 말기 관직의 고하에서 나타나는 신분계층간의 대립속에서 하급 관직에 있는 계층원들의 원도 풀린다.이처럼 음양관계로 볼 때 양적요소, 양적계층과 대응돼 원을 갖고 있는 음적요소, 음적계층을 해원시켜야 한다.(高南植.1998A:463~464)

이러한 원한을 풀기위해 음과 양을 정음정양화 시켜야 하고 그속에서 신과 인의 調化가 이루어져 삼계의 화평이 정립되는 것이다.

구천상제의 해원과 상생의 법리를 근간으로 종지가 선포됨으로써 우주와 세계, 인간과 신명의 관계가 원과 척을 맞고 상극하는 대립, 투쟁, 抱冤이 아닌 공존공영과 이해의 장을 이루기 위한 포교와 공부를 해나간 것이 무극도의 방향성이었다.

4. 道通眞境

선천 상극이 낳은 원으로부터 야기된 비겁과 재겁을 없애 常道가 회복된 후천선경을 이룩하는 것이 구천상제의 강세 목적이다.

후천선경은 우주의 모든 것들이 완성을 이루는 道通과 함께 열리는 이상세계인 眞境으로 설명된다.

구천상제는 후천선경을 건설하는 천지공사를 단행하였고 천지공사의 도수를 맞춰 종통을 계승한 道主는 후천선경을 이루고자 도가 통하는 진경의 경지를 목적으로 포교 50년공부를 하였다

그리고 도통진경은 종지가 이루고자 하는 궁극적 목적이 되므로 道通眞境을 이루는 일은 종지와 함께 발표된 목적과 관련지어 설명될 수 있다.

특히 地上天國建設 世界開闢은 내용상 도통진경과 밀접하며 도통진경의 세계속에서 인간에게 있어서는 無自欺와 地上神仙이라는 목적 내용이 관계됨을 볼 수 있다. 다음의 세가지 무극도 목적에 맞추어 도통진경을 보기로 한다.

1) 無自欺 精神開闢

무자기는 속임이 없는 것을 말한다. 마음먹고 행동했던 그대로를 있었던

그대로 말하고 보여줌으로써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나아가 인간세상도 진실해져 도가 통하는 眞境世界을 이룰 수 있다.

한편 정신개벽의 면은 信條중 四綱領의 安心과 연결된다. 사강령은 선천의 모든 병을 고치기위한 것으로 정신을 무자기로 개벽해 구천상제가 『천하가 모두 병들었다. 大病의 약은 안심과 안신이다(天下皆病 大病之藥 安心安身)』이라고 한 내용에 맞춰 인간의 정신과 몸을 올바르게 고치기 위해 안심 안신을 강조한다.

종국적으로는 끊어진 神道の 脈을 잇기 위해 하늘을 공경하고 신명과 조상을 공경해 원시반본을 맞춰 인간존재의 근본을 아는 敬天과 도를 닦아나가는 실천을 수행한다. 이를 통해 도통진경의 경지를 이루는 것이다.

2) 地上神仙實現 人間改造

仙境과 眞境은 서로 통하는 의미이며 신선이 지상에서 사는 세계는 진경의 세상이라 할 수 있다.

구천상제가 인간의 지혜가 밝아져 十方世界에 통달하고 불노불사하는 後天仙境을 언급한 점에 맞추어 无極道の 目的은 人間을 改造하여 地上神仙을 현실에 구현하고 구천상제가 인간에게 내려 주는 무궁한 운수를 지상에서 받고자하는 것으로 이것은 수도공부(侍學,侍法)의 法方을 실천하는데서 가능하다.

이러한 실천에서 중요한 것은 信條중 三要諦로 발표된 誠敬信으로 지상신선이라는 목적을 이루기위해 인간이 가져야될 근본 자세라 볼 수 있다. 삼요체는 修心과 修身에 관계되며 도통을 이루어 진경에 이르기위한 수행의 핵심이다.

인간개조로 지상신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구천상제의 「복록이 성경신에 있고 수명이 성경신에 있다(福祿 誠敬信 壽命 誠敬信)」이라는 말처럼 성경신을 실천해 나갈 때 가능하며 그속에서 인간의 도통진경도 구현된다고 할 수 있다.

3) 地上天國建設 世界開闢

구천상제는 허물어져가는 집에서 살려면 무너질까 불안하니 새집을 지어야 한다고 선언했다. 이것이 구천상제의 三界 開闢사상이다.

무극도는 상극으로 병들어 잘못된 선천 환경을 새롭게 뜯어 고쳐 개혁을 통해 인류에게 천국의 환경을 제시해 道通眞境을 이룸으로써 인류는 後天仙境에 있게 된다.

이러한 세계 개혁을 이루기 위해서 신명은 구천상제의 命을 따라 역사케 되고(玉樞統 참조, 교운 2장 42절) 이를 통해 지상천국의 진경세계가 열리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처럼 무극도의 종지와 함께 발표된 목적과 신조등은 道通眞境화된 우주 의 실상과 그러한 진경에서 필요한 인간의 마음자세와 지상 신선으로서의 인간 본질등을 표현한 것이다.

이상에서 대체적으로 보았듯이 「陰陽合德 神人調化 解冤相生 道通眞境」의 종지 속에 구천상제의 강세 목적과 천지공사의 이념이 관련돼 있는 것은 종통을 계승해 포교 50년공부를 실행한 도주의 위상을 나타낸 것이며, 敎運史에서 도주가 무극도를 창도해 계속적으로 구천상제의 천지공사의 위업을 정해진 도수에 따라 풀어 이루어나감을 보여 주는 것이다.

VI. 結 語

本考는 교운사에서 구천상제의 천지공사의 맥을 이어 전개되는 時運과 度數에 따르는 宗旨의 제정 그리고 종지의 내용을 중심으로 道主의 宗統繼承의 면을 고찰한 것이다.

도주의 종지선포와 그와함께 나타난 천부적인 종통계승은 이미 구천상제가 천지공사로서 처결한 「포교 50년 공부종필」을 따라 이루어진 것이었다.

新元은 시간에 따라 순환되는 우주관속에서 선포된 것이고 그와 함께 발표된 傳敎의 내용은 각 統과 그에 따른 會별로 인류 역사속에 출현했던 神聖의 가르침과 동서 주요 종교의 시운에 맞춘 순환을 설명한 것이다.

과거의 一元을 敎運史속에서 구천상제의 강세와 선천 개혁후 등장했던 인

물, 선천 문제(冤)에 대한 진단등과 연결지어 볼 때 50년공부속에서 선포된 종지는 천지공사의 정해진 시운적 맥락위에서 나온 것이다.

구천상제는 천지공사를 9년간 행하고 화천하던 1909년 종도들에게 화천을 암시하고 자신에 대한 믿음을 잃지말 것을 강조하며 훗날의 出世를 豫示하였다.

이러한 화천과 출세의 암시속에서 구천상제는 道通이 자신의 私情에 의하지 않고 神界 儒佛仙 도통신과 人界에서 후일 등장할 대두목과 연관됨을 보이는 대두목 공사를 종도들과 처결했다.

나아가 九天上帝는 天地公事를 마치고 布敎 50年 工夫終畢의 도수를 밝혔다.여기에서 布敎는 治天下로서 平天下한 구천상제의 가르침을 펴는 것으로 대두목, 50년공부등과 연결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50년공부에 있어 도주는 1909년의 봉천명으로부터 1958년의 화천까지 포교 50년공부를 하였으며 여러 도수 공부를 통해 구천상제의 천지공사를 삼계에 퍼 나갔다.이중 부산 동래 마하사 공부는 구천상제 在世時의 선천 세상 道の 祖宗을 밝힌 공사를 도수로 풀어 도주의 종통계승의 위상을 밝힌 것이다.

시기적으로 종지 선포전의 봉천명, 득도, 창도 과정에서의 도주의 종교적 행적은 구천 상제의 삼계 대순 진리의 感悟得道를 기점으로 封書의 傳受와 無極道 창도속에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상제」로의 구천상제에 대한 奉安등이 종통계승과 긴밀히 연결되고 있다.

특히 「陰陽合德 神人調化 解冤相生 道通眞境」의 종지 제정은 함께 발표된 四綱領 三要諦로 이루어진 信條와 정신개벽 인간개조 세계개벽의 目的과 함께 일련의 50년 공부 과정속에서 구천상제 재세시의 천지공사와 敎法등을 교리체계화 시킨 것으로 종통 계승의 정통성을 보여준다.

무극도 종지의 내용은 거시적으로 구천상제의 선천문제의 진단에 있어 陰陽, 神人, 相克, 冤등과 연결되어 있고 선천문제의 해결과 후천선경 건설에 있어 合德, 調化, 解冤, 相生과 접맥되어, 敎運史에서 九天上帝의 三界 大巡의 진리가 구현된 인류이상향인 眞境건설을 현실에 이루는 大志를 담고 있다.

【참고문헌】

大巡眞理會 敎務部編(1974), 『典經』

高南植(1992), 「先天現實과 天地公事論」, 『大巡論集』 제1집, 大巡眞理會 敎務部

高南植(1996), 「典經에 나타난 新元의 意味」, 『大巡思想論叢』 제1집, 大巡
思想學術院

高南植(1997A), 「典經에 나타난 陰陽合德」, 『大巡思想論叢』 제2집, 大巡思
想學術院

高南植(1997B), 「典經에 나타난 神人調化」, 『大巡思想論叢』 제 3집, 大巡思
想學術院

高南植(1998A), 「典經에 나타난 解冤相生」, 『大巡思想論叢』 제 4집, 大巡思
想學術院

高南植(1998B), 「典經에 나타난 道通眞境」, 『大巡思想論叢』 제 5집, 大巡思
想學術院

【참조 : 典經에 나타난 主要 人物과 歷史的 事實】

西紀	大巡	九天上帝	道主	元	典經 主要 內容과 관련된 歷史的 事實(전경 구절)
					天皇 地皇 人皇時代(예시 14)
					伏犧(행록 2-5)
					神農(예시22)
				초통	초회 黃帝 五帝 禹
					중회 湯
					계회 文王
				중통	초회 釋迦牟尼
					중회 孔子
1年(耶蘇)					계회 耶蘇
				계통	초회 佛敎
					중회 新儒學
					耶蘇敎(교운2-26,傳敎)
1610					이마두(마테오 리치) 사망
					신성 불 보살 九天에 하소연
					구천상제 금산사 미륵금불 임어
1860					구천상제 최제우에게 천명과 신교, 최제우 동학 창교
1864					최제우 사망(교운1-9)
1871	1年	1歲			九天上帝 降世(행록1-5)
1895	25	25	1歲		道主 趙鼎山 誕降(교운2-1)
1901	31	31	7		구천상제 천지공사 시작(공사1-1)
1909	39	39	15		구천상제 천지공사 마치고 化天(행록 5-35), 道主 만주로 奉天命(교운2-4)
					感悟得道(교운2-6)
1917	47		23		還國(교운2-9) 宇一齋에서 공부
1918	48		24		원평, 구릿골 약방(교운2-10), 대원사 방문(교운2-11)
					封書를 받음(교운2-13)
1919	49		25		遁櫃를 가져옴(교운2-17) 부안 변산 굴바위 공부(교운2-19)
1920	50		26		둔개가 열림(교운2-20), 大院寺에서 백일 도수(교운2-21)
1921	51		27		구천상제의 聖骨을 모셔옴(교운2-22)
1922	52		28		납월 도수, 북현무 도수(교운2-24)

1923	53		29		이재신원, 전교(교운2-26), 둔도수(교운2-29), 단도수, 진인보두법(교운2-27)
1924	54		30		폐백도수(교운2-30)
1925	55		31		无極道 創道 구천상제 奉安 종지, 신조, 목적 제정(교운2-32) 覺道文 선포(교운2-33) 육정신장 응기(교운2-34) 토지해원위해 간사지 개척 洪一宇 공부(교운2-35)
1926	56		32		담뱃대 도수(교운2-38), 서울에서 공부(교운2-39)
1927	57		33		주눅는 공부(교운2-40)
1928	58		34		포유문 선포(교운2-41), 주문(교운2-42)
1941	71		47		인덕도수, 잠복도수, 무극도 해산(교운2-43), 고향 會文里 廻龍齋에서 공부(교운2-44)
1949	79		55		마하사 공부(교운2-47)
1955	85		61		만동묘(교운2-50), 해인사 공부(교운2-54, 55)
1956	86		62		동학사 공부(교운2-57) 지리산 쌍계사 공부(교운2-60)
1957	87		63		道人的 侍學 侍法 工夫 선포(교운2-62)
1958	88		64		宗統을 都典(牛堂 朴漢慶)에게 傳授 후 化天(교운2-66)

【참조 : 典經 교운 2장에 나타난 구천상제와 도주의 관련 구절 정리】

宗統의 계승과 관련 도주의 구천상제와의 관련성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내용과 간접적 이나 50년 공부과정에서 중요한 구절을 전경 교운 2장에서 찾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이러한 宗統속에서 증지는 선포되었으며 구천상제의 사상을 요점적으로 잘 담고 있다. 典經의 내용에서 문헌적으로 종통계승의 사실성을 보기로 한다

1. (1절, 상제의 공사를 뒤이을 도주)

여흥민씨가 어느날 하늘로부터 밝게 자기에게 비취더니 한 아기를 낳으니라. 이 아기가 장차 상제의 공사를 뒤 이을 도주이시니 때는 을미년 十二月四日이고 성은 趙씨이요. 존휘는 哲濟이요. 자함은 定淸이시고 존호는 鼎山이시며 탄강한 곳은 慶南 咸安郡 漆西面 會文里이도다.

2. (4절, 봉천명)

도주께서 기유년(十五世時) 四월 二十八일에 부친과 함께 고국을 떠나 이국땅인 만주에 가셨도다.

3. (6절, 상제의 삼계대순의 진리를 감오득도)

도주께서는 九년의 공부 끝인 정사년에 상제의 三界大巡의 진리를 感悟하시도다.

4. (7절, 神인이 나타나)

도주께서 어느날 공부실에서 공부에 전력을 다하시던 중 한 신인이 나타나 글이 쓰인 종이를 보이며 "이것을 외우면 救世濟民 하리라"고 말씀하시기에 도주께서 禮를 갖추려 하시니 그 신인은 보이지 않았으며, 그 글은 "侍天主造化定 永世不忘萬事知 至氣今至願爲大降" 이었도다.

5. (8절, "태인에 가서 나를 찾으라"는 명을 받으시니 이때 도주께서 이국땅 만주 봉천에 계셨도다)

그후에 도주께서 공부실을 정결히 하고 정화수 한 그릇을 받들고 밤낮으로 그 주문을 송독하셨도다. 그러던 어느날 "왜 조선으로 돌아가지 않느냐. 태인에 가서 나를 찾으라"는 명을 받으시니 이때 도주께서 이국땅 만주 봉천에 계셨도다.

6. (9절, 상제께서 가르치신 곳이 아닌 듯하여)

그리하여 도주께서 정사년 四월에 친계 가족을 거느리고 만주를 떠나 뱃길로 태인으로 향하셨던 바 도중에 폭풍을 맞아 배는 서산 태안에 닿으니라. 이곳을 두루 다니면서 살폈으며 상제께서 가르치신 곳이 아닌 듯하여 安眠島에 옮기셨도다.

7. (10절, 상제께서 九년 동안 이룩하신 공사를 받으신 것이고 "김재 원평에 가라"는 명에 좇은 것)

도주께서 무오년 가을에 재실에서 공부하실 때 상제께 치성을 올리신 다음에 이정률외 두 사람을 앞세우고 원평을 거쳐 구릿골 약방에 이르셨도다. 이길은 상제께서 九년 동안 이룩하신

공사를 받으신 것이고 "김제 원평에 가라"는 명에 좇은 것이라 하시도다.

8. (11절, 대원사:상제께서 공부했던 장소)

이해 시월에 도주께서 權泰翕외 몇사람을 이끄시고 모악산의 대원사에 이르시니라. 이때에 도주께서 "개벽후 後天 五만년의 도수를 나는 펴고 너는 득도하니 그 아니 좋을시구"라 하시고 이정률에게 원평 황새마을에 집을 구하여 가족들을 그 곳에 이사 거주하게 하고 자신은 대원사에 몇 달 동안 머무셨도다.

9.(13절, "상제께서 재세시에 늘 을미생이 정월 보름에 찾을 것이로다"라고 말씀하셨음을 아뢰이니라. 부인은 封翕를 도주께 내어드리면서 "이제 내가 맡은 바를 다 하였도다"하며 안심하는도다.)

도주께서 다음 해 정월 보름에 이치복(호:석정)을 앞세우고 정읍 馬洞 김기부의 집에 이르러 대사모님과 상제의 누이동생 선돌부인과 따님 舜任을 만나셨도다. 선돌부인은 특히 반겨 맞아들이면서 "상제께서 재세시에 늘 을미생이 정월 보름에 찾을 것이로다"라고 말씀하셨음을 아뢰이니라. 부인은 封翕를 도주께 내어드리면서 "이제 내가 맡은 바를 다 하였도다"하며 안심하는도다. 도주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이곳에 보름 동안 머무시다가 황새마을로 오셨도다.

10.(14,16,20절. 둔계:상제께서 재세시 공사본 계)

선돌부인이 하루는 "구릿골 약방에 비치하셨던 둔계가 천지도수의 조화둔계라 하루 바빠 그것을 찾도록함이 어떠하겠나이까"라고 도주께 아뢰니라. 이때 도주께서는 도수에 따라 李俊世의 재실에서 도수를 보고 계셨도다. 이곳은 황새마을에 가까운 通士洞이니라.

도주께서 기미년 九월에 들어서서 井邑 大興里 車京石의 보천교 본부에 遁계를 가져다 둔것을 확인하시고 그것을 재실로 옮기고자 하셨도다.

도주께서 경신년에 재실에서 밤낮으로 불면 불식하면서 공부하시던 중 이월 열 이레에 둔계가 봉안된 곳에서 벼락소리가 나더니 둔계가 저절로 열려져 있었도다. 그 속에 호피 한장과 반쯤 핀 국화 한 송이가 그려있고 羊血 스물넉정이 궤에 찍혀있고 烏江錄 팔문둔갑 舌門이란 글자가 궤에 쓰여 있었도다. 그후 둔계는 도주께서 함안 伴鷗亭에서 공부하실 때 그곳에 옮겨졌도다. 그러나 당시 심복자이던 창원사람 조주일이 둔계를 훔쳐 갔는데 훗날에 종도들이 이를 알고 매우 안타까와하니 도주께서 "그 시기의 도수에 쓰였으면 족하니라. 둔계의 둔자는 도망둔자이도다"고 그들에게 이르셨도다.

11. (17절,약장: 상제의 동곡약방 약장 공사)

조용의와 권태로, 권영문, 이정두, 김사일, 박봉래외 두명이 대흥리로 가니라. 이들이 보천교 본부에 당도하니 九월 四일 새벽 한시경이 되니라. 본부의 사람들이 모두 깊이 잠이 든 때 인지라. 그들이 한방에 들어가 병풍으로 가리워 놓은 둔계와 약장을 찾아가지고 나왔으나 약장만은 도중에 놓고 왔기에 옮겨지지 못하였도다.

12. (18절, 无極大運의 解冤相生大道의 진리를 설법하시여 道를 밝혀주셨도다)

도주께서 通士洞 재실에서 어느날 "吾道者 今不聞 古不聞之道也"라 믿고 닦기가 어려우니라. 하시고 다시 추종하는 여러 사람들을 앞에 모으고 无極大運의 解冤相生大道의 진리를 설법하시여 道를 밝혀주셨도다.

13.(19절,상제의 대순하신 진리를 사람들에게 설법하시니라)

도주께서 이상우를 데리고 扶安 邊山 골 바위에 이르러 이곳에서 공부하시면서 상제의 대순하신 진리를 사람들에게 설법하시니라. 이에 따르고자 하는 우리 이백이 넘었도다.

14.(21절, 도주께서 "이곳이 바로 상제께서 천지신명을 심판한 곳이니라. 아직 응기하여 있는 것을 내가 풀었노라"고 말씀하셨도다)

종도들에게 칠성경을 외우게 하시고 도주께서 대원사에 들어가셔서 백일 도수를 마치셨도다. 마치신 날이 바로 신유년 칠월 칠석날이라, 그때에야 종도들이 칠성경을 외운 뜻을 깨달으니라. 그들을 보시고 도주께서 "이곳이 바로 상제께서 천지신명을 심판한 곳이니라. 아직 응기하여 있는 것을 내가 풀었노라"고 말씀하셨도다.

15.(22절, 상제의 성골)

신유년 九월 五일에 권태로와 그외 네 사람이 도주의 본부를 받고 구릿골에서 통사동 재실로 상제의 성골을 모시고 돌아오니라. 이때 갑자기 뇌성이 일고 번개가 번쩍였도다.

16.(23절, 성골이 옮겨진 후 십 오일이 되니 상제께서 구세 제민 하시고자 강세하신 날이 되니라. 이날 재실에 모여 치성을 올린 후에)

성골이 옮겨진 후 십 오일이 되니 상제께서 구세 제민 하시고자 강세하신 날이 되니라. 이날 재실에 모여 치성을 올린 후에 도주께서 "時時默誦空山裡 夜夜閉聽潛室中 分明造化成功日 堯舜禹王一切同이라" 말씀하셨도다. 그러나 듣고 있던 사람들은 그 뜻을 알아듣지 못하느니라. 그들 속에 권태로, 이상우, 이우형이 끼어있었도다. 이들은 재실에서 매일 밤낮으로 치성을 올리고 공부하시는 도주의 시종을 들었도다.

17.(32절, 상제를 九天應元雷聲普化天尊上帝로 봉안)

을축년에 舊泰仁 道昌峴에 도장이 이룩되니 이 때 도주께서 無極道를 창도하시고 상제를 九天應元雷聲普化天尊上帝로 봉안하고 宗旨 및 信條와 目的을 정하셨도다.

宗旨: 陰陽合德 神人造化 解冤相生 道通眞境

信條: 四綱領... 安心 安身 敬天 修道; 三要諦... 誠 敬 信

目的: 無自欺 精神開闢, 地上神仙實現 人間改造, 地上天國建設 世界開闢

18.(41절, 任上宰之任意洋洋上帝在上浩浩道主奉命明明度數無私至公引導乎無量極樂五萬年清華之世)

무진년에 포유문이 선포되었느니라.

布 喻 文

曰人生處世惟何所欲惟名惟榮曰名曰榮人所共欲而求之難得是何故也都是無他未如捷徑捷徑非他求也吾之所求有無量至寶至寶即吾之心靈也心靈通則鬼神可與酬酢萬物可與俱序惟吾至寶之心靈無路可通汨沒無形之中一世處過幸於此世有無量之大道正吾之心氣立吾之義理求吾之心靈任上宰之任意洋洋上帝在上浩浩道主奉命明明度數無私至公引導乎無量極樂五萬年清華之世肅我道友嚴我道友極誠極敬至信至德難求之欲虛過一世之冤至干斯而豈不解冤哉喜吾道友助哉勉哉

19.(48절, 상제의 글귀를 외우시고 "상제께서 짜 놓으신 도수를 내가 풀어나가노라")

도주께서 마하사에서 도수를 마치고 도장에 돌아오시니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느니라. 도주께서 그 자리에서

少年才氣拔天摩 手把龍泉幾歲磨

世界有而此山出 紀運金天藏物華

應須祖宗太昊伏 道人何事多佛歌

의 상제의 글귀를 외우시고 "상제께서 짜놓으신 도수를 내가 풀어나가노라"고 말씀하셨도다.

20.(49,50절. 상제의 만동묘 공사 ;공사 2장 6절,3장 22절)

朴漢敬이 도주의 부르심을 받고 청주의 근방에 있는 청천면 화양동의 萬東廟를 찾으니 건물은 왜청 때에 없어지고 빈터만이 남아있는 사정을 도주께 아뢰었도다. 또 그는 도주의 분부를 좇아 柳漢珪를 데리고 화양동에 가서 도주께서 거쳐하실 곳을 마련하고 기다렸으되 다음 기회에 미루신 소식을 듣고 되돌아왔도다. 신묘년 삼월에 있었던 일이니라.

갑오년 삼월에 도주께서 安商翊 외 네명을 대동하고 청천에 가서서 皇極神이 봉안되어 있는 만동묘 遺址를 두루 살펴보고 돌아오셨는데 돌아서실 때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더니 밤중에 폭풍과 뇌성 벽력이 크게 일어 산악이 무너지는 듯 하니라. 다음 날에 崇禎皇帝御筆의 非禮不動이 새겨 있는 청성대 아래쪽 암벽의 좌편에 달혀있던 石門이 두쪽으로 갈라져 내리고 그 안의 玉藻冰壺의 네자와 萬曆御筆의 네자가 나타났다는 소문이 전하였느니라.

20.(55절 "상제께서 해인을 인패라고 말씀하셨다고 하여 하늘은 三十六天이 있어 상제께서 통솔하시며 전기를 맡으셔서 천지 만물을 지배 자양하시니 雷聲 普化 天尊 上帝이시니라.")

도주께서 해인사에서 돌아오신 다음 날에 여러 종도들을 모아놓고 "상제께서 해인을 인패라고 말씀하셨다고 하여 어떤 울체로 생각함은 그릇된 생각이니라. 해인은 먼데 있지 않고 자기 掌中에 있느니라. 우주 삼라 만상의 모든 이치의 근원이 바다에 있으므로 해인이요. 海島眞人이란 말이 있느니라. 바닷물을 보라. 전부 전기이니라. 물은 흘러 내려가나 오르는 성품을 갖고 있느니라. 삼라 만상의 근원이 수기를 흡수하여 성장하느니라. 하늘은 三十六天이 있어 상제께서 통솔하시며 전기를 맡으셔서 천지 만물을 지배 자양하시니 雷聲 普化 天尊 上帝이시니라. 천상의 전기가 바닷물에 있었으니 바닷물의 전기로써 만물을 포장하느니라"고 말씀하셨도다.

21.(66절, 五十年 工夫 終畢이며 至氣 今至 四月來가 금년이다)

도주께서 정유년 十一月 二十一日 자시부터 무술년 三月 三일까지 도장에서 불면 불휴하고 백일도수를 마치시니라. 五월에 심히 괴로와 하시므로 한의사와 양의사를 불러왔으되 "때가 늦었도다"고 이르시니라. 도주께서 이튿날 미시에 간부 전원을 문 밖에 시립케 한후 도전 박한경을 가까이 하고 도전의 머리에 손을 얹고 도의 운영 전반을 알도록 분부를 내리고 "五十年 工夫 終畢이며 至氣 今至 四月來가 금년이다. 나는 간다. 내가 없다고 조금도 낙심하지 말고 행하여 오던 대로 잘 행해 나가라"고 말씀하시고 다시 문밖을 향하여 "도적놈"을 세번 부르시더니 화천하시니라. 무술년 三月 六일 미시요. 양력으로 一九五八年 四月 二十四일이요. 수는 六十四세로다.